

환영사

한국불교를 대표하여 수프아모 스님과 호주불교 대표 스님의 참석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세계 불교의 흐름이 이제 유럽과 미국을 지나 이곳 호주에까지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여기에 계신 여러분의 면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오늘 이 자리가 더욱 뜻 깊습니다.

호주의 상징이 호주 오페라하우스, 캥거루지만 머지않아 ‘불교’가 호주의 문화와 종교의 중심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교의 인연의 정신을 바다를 건너 조출하게나마 서로에게 나누고,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상호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로 만들어보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한국 불교의 정신을 담은 사찰음식의 단아함과 깊이 있는 풍미를 도반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격변하는 시대의 혼란과 어둠을 치유해야하는 소명으로 불교인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를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우의를 다지는 것에도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에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한국불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곳 호주의 넉넉함과 호주 불교의 따스함을 담아 한국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존중과 자비 정신’의 가르침이 현대의 첨단 시대에 살아가는 대중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 될 것임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확산되는 것은 세계평화와 서로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반드시 불교계가 공동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의미를 모두 함께 되새기며, 세계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웃 종교와 상대방에 존중도 함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한국 불교계가 준비했으나, 금번 행사는 호주 불교계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의 자리입니다. 현대인의 마음속에 작지만 소중한 불교적 경험을 호주인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큰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계기로 향후 한국의 아름다움은 한국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행사의 성과를 호주내에서 확대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호주 불교계 도반스님들과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먼걸음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호주의 큰 스님께 감사드리며, 한국의 사찰음식과 문화를 편하게 즐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